

“혼자만 살아남아 좋은 소식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선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 징용 승소 유일한 생존자 광주 이춘식 등

신일본제철소서 중노동 ... 패망 후 임금 한 푼 못받아

2005년 동료 3명과 日 전범기업 상대 법정 다툼 시작

선고날 동료들 사망 소식 들어 “같이 했으면...”

“나 혼자 살아서 좋은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30일 오후 대법원 현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춘식(94) 할아버지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 할아버지는 이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3년 8개월만에 승소했다.

77년 전 17살 때 겪었던 가혹한 경험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 이 할아버지는 어느덧 휠체어에 의지하는 노령이 됐지만 표정과 기세는 젊은 시절 못지 않았다.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를 향해 오른손으로 경례하거나 꾸벅 머리를 숙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24년 광주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핏에 빠져 근로보국대(일제가 조선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조직)에 지원했다.

일본인들은 이 할아버지를 신일본제철의 가마시 제철소에 보내 1943년까지 하루 12시간씩 철근을 나르는 중노동을 시켰다. 임금은 한번도 받지 못했고 철재 위로 넘어져 생긴 배 위의 큰 흉터만 남았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이 할아버지는 임금을 받기 위해 제철소를 찾았으나 이미 폭격으로 폐허가 된 상태였다. 임금을 포기한 채 살았던 이 할아버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005년 동료 3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4번의 재판 후 재상고심의 확정판결이 5년가량 미뤄지면서 일본 전범 기업과 법정 투쟁을 벌였던 동료 피해자들은 하나 둘 결을 떠났다.

홀로 남은 이 할아버지는 이날 재판을 보기 위해 오전 9시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다. ‘상고기각’이라는 재판부의 선고를 직접 들은 할아버지는 변호인에게 의미를 전해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듯만 했다.

이 할아버지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을 오늘 와보니까 혼자 있어서 슬프고 초조하다.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다. 같이 했으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를 맡았던 김세은 변호사는 “이 할아버지는 동료들이 모두 돌아가신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 충격을 받을까 봐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고(故) 김규수(향년 90세)씨의 부인 최정호(85)씨도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소식을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공직자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

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해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한시 인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

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1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경매비법 전수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교육/임장비 1200만원(3개월)
· 배우면서 단독/공동투자 가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또하나의 소송 근로정신대 미쓰비시 소송은?

광주 양금덕 할머니 등 5명 1993년 日서 패소 뒤 2012년 광주지법에 소송 제기

2015년 대법원 계류 중...미쓰비시重 상대 2·3차 항소심 오늘·내달 2일 열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30일 최종 승소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정신대 재판도 신일철주금 재판과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2년 10월24일 양금덕(87)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3월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1인당 손해배상금 3000만원(3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미쓰비시중공업에 ‘양씨 등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미쓰비시측은 즉시 항소했지만 2015년 6월 2심도 양씨 등 3명에게 각각 1억 2000만원, 원고 중 이동란(88) 할머니 에겐 1억원, 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또다시 불복해 같은해 7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8월 사건을 접수한 후 지난달 10일야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안은 양상태 사법부의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사고 있다.

2014년에는 김재립(87)·심심애(87)·양영수(86) 할머니와 강제 징용 당시 숨진 오길애(당시 14세) 할머니의 남동생 오철석(81)씨가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11일 오씨에게 1억5000만원, 김 할머니에게 1억2000

만원, 양 할머니·심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5년에는 김영옥(86) 할머니와 최정례(1927년 출생·1944년 사망)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가 광주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8일 김 할머니는 1억2000만원, 이씨는 상속분에 근거해 325만6684원의 위자료를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3차 재판도 불복해 지난해 8월30일(3차 소송)과 9월5일(2차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차 항소심은 각각 31일 광주고법, 다음 달 2일 광주지법에 열릴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의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1차 소송도 조만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아직도 반성 않고

日 “매우 유감”

일본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판결 이후 항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 시각이 담긴 것이다.

일본 측은 또 각급 법원에 10건 이상의 징용피해자 소송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측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선반응을 피하는 모습이다. 일단 한국 측에 공을 넘긴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청구권 문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신안 증도면 바다전 602㎡ 조용한 생활 적합 5500만원
- 완도 약산면 바다전 주택 대지 607㎡ 주택 70㎡ 1억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보성 문덕면 대원사입구 전원주택지 4113㎡ 교환가능 4억4천

주택·원룸·아파트

- 아파트 서구 능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깨끗함, 리모델링완료 1억7천
- 농성초간나면 월산동 소방도점 대지 129㎡ 주택 66㎡ 은행5천,1억3천
- 월산동 농성초 간나면 소방도점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전저수지부근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장성 삼계면 상업지 601㎡ 은행 1억 투자에 양호 3천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담양 월산면 가든 땅 1658㎡ 상가주택과 교환원 6억2천
- 남평읍 평산리 담·전 8461㎡ 공시지가 2억천 투자에 양호 8억2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할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용적합 7억7천
- 유등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 장성을 의원건물 대지 340㎡ 건물 489㎡ 임대 중 은행2억 매도 3억7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용봉동 고시텔 땅 357㎡ 건평 829㎡ 45실 은행 7억 교환가능 9억
- 양산동 대지 231㎡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팬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적합 3억천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 시 : 2018. 10. 30(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8. 10. 23(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백과 중화
- 음력, 양력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